

선 교 편 지

황석천, 이은정, 준수, 인영 2022.03.02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6-18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 1:2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계 2:7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편지를 보냅니다

한번도 생각 못한 코로나 시대이지만 성경은 환난 날을 경고하고 있고, 부흥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고 사역을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황량하고 피폐해진 모습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중심과 자세는 무엇일까? 잠시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땅 선교지에 있는 나에게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무엇하려고 거기 있느냐" 라고 물으면 나의 답은 나의 처해진 환경과 나의 감정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일 줄을 압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들었고, 말해왔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가는 자, 동시에 그들을 보내는 자, 그리고 계속 현장에 있는 자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필요함을 공유하고 돕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그 황량함 속에서 찬양하며 사역하도록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임을 배워왔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같이 선교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계 2:7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1:11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이 복음의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될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과 말씀으로 잘 감당하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 ,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교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역과 지원)
- , 동역자들과 협력자들, 후원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현장에서나 한국과 세계에서)
- , 육신이 지치거나 힘든 일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저의 고질적 통증이 치유되도록, 이은정 선교사가 지치지 않도록 , 준수가 가끔씩 심한 복통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 , 준수 인영이의 대학 진학과 앞으로 대를 이어 주께 충성하고 헌신적 삶을 살도록
- , 속히 선교의 왕래가 이루어지도록

후원구좌

일본 후쿠오카국제교회 후원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148-147198 황석천